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양극,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용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9.) 발표자료

목 차

1. 동아시아 정세와 러·미관계 위상
2. 푸틴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노선
3.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러미관계 특징
 - 가.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 나. 러미관계의 특징
4. 러미관계 전망과 對동아시아 파급영향
 - 가. 전망
 - 나. 동아시아에의 파급영향
5.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

1. 동아시아 정세와 러·미관계 위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상대적 부상으로 특징지어진 G2체제의 가시화이며, 동시에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구도의 모습을 띠고 있음.
- 동아시아 정세는 G2체제의 등장과 함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양상이 표출되고 있으며, 미·중 양국간 일종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pivot to Asia, re-balancing)와 중국의 굴기(China’s rising)가 충돌”하는 것으로, 미래에 국제안보질서상의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음.
- 국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국제 리더십, 정치, 군사·안보, 경제, 문화 영역 등이 포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을 내포하는 등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시대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역내 주변국들 간의 관계는 국제정세 불안정의 증대 및 국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합종연횡(合從連衡)하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러미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 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하 국제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 5월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리더십 양극,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임시망명, 유럽 MD 배치 추진, NATO의 동진, 러시아 대내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 대립 양상이 보다 부각되고 있어 주목됨.
-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세계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 푸틴정부의 對美정책 전개 동향과 전략적 입장, 나아가 러미관계 변화 전망 및 동아시아·한반도에 대한 정책 시사점 파악이 중요함.

2. 푸틴정부 출범과 대외정책 노선

- 푸틴은 2012년 3월 4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63.6%의 지지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으며, 5월 7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집권 3기를 출범시킴.
- 집권 3기 푸틴정부의 출범은 ‘후계자 대통령 對 실세 총리’ 이중권력(tandem), 양두체제(diarchy)를 종식시킨 가운데
 -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결과 2024년까지의 장기집권 가능성 내포;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와 주권 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의 공고화; 기존 지배엘리트의 권력 기반 지속; 세계질서 재편 관련 푸틴정부의 대내외 정책 향배와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 개요 등의 정책적·학술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
- 푸틴은 선거공약으로 ① 우리의 가치, ② 보람있는 삶-위대한 국가의 시민, ③ 강한 경제-강한 러시아, ④ 국민 통제하의 효율적 권력, ⑤ 어려운 세계 속의 강한 러시아를 핵심 추진 사안으로 제시함.
 - * “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2012.2.27) 등 푸틴이 언론에 게재한 7편의 논문 참조
- 푸틴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강한 경제, 강한 러시아’, ‘강국 러시아의 부활’, ‘슬라브 민족의 위대성(자존심) 구현’ 등으로 집약됨.
 - 대내적으로 국가두마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두된 중산층의 반정부 시위, 사회 변혁 요구를 의식해 부정부패 척결, 주지사 직접 선거제 부활, 정당 설립 요건 약화 등의 조치를 취함.
 - 연금, 조세, 보건, 교육개혁 등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집시법, NGO법 개정, 유해사이트 지정법, 통신사 통폐합 등 사회 통제와 관리를 강화시켜 가면서 정치적 안정도 도모함.
 - 대외적으로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CIS국가들 간 경제통합, 2015년까지 유라시아연합 창설, 문화 및 공공 외교 전개, 불법 이민 방지, 국제테러리즘 대응, 집단안보 유지, 군현대화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집권 3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은 메드베데프 집권기를 포함해 기존 푸틴 1, 2기에 추진했던 ‘강국 러시아 재건’의 연장선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홍완석)’, ‘적극적 실용주의 노선(신범식)’, ‘독자적 강대국 노선’,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 정상화 전

푸틴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강한 경제, 강한 러시아’, ‘강국 러시아의 부활’, ‘슬라브 민족의 위대성(자존심) 구현’ 등으로 집약됨

**푸틴정부는 국제정세의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소연방의 해체로
손상된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다극적
질서로 재편하여
유라시아 중심국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는 것임**

략(강봉구)’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음.

- 러시아는 21세기의 세계질서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고, 세계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안보, 보건 등 제반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관계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과정에 있으며 9/11 이후 전개된 미국의 일극적 패권적 국제체제가 다극화, 다층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나아가 미국과 서방이 세계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지구적 힘과 발전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분산되면서 동쪽(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푸틴정부는 독립국가연합(CIS)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통합에 나서고 있으며, 내각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2012.5), ‘극동 및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를 성안하는(2013.3)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중점을 둔 新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푸틴정부는 국제정세의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소연방의 해체로 손상된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다극적 질서로 재편하여 유라시아 중심국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는 것임.
- 이의 실천을 위해 러시아는 UN의 역할 강조,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BRICS, G20, G8, EAS, APEC, ASEM 등 다자기구에의 참여, 국제법과 국제규율 준수, 다극화,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제반 국제현안에 대한 중재력 발휘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음.
- 2013년 포브스(Forbes)지는 푸틴 대통령을 세계 영향력 1위의 인물로 선정해 주목받았으며, 푸틴정부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의 평화적 해결, 이란 핵문제 중재, G20 정상회의와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월드컵 유치 등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러미관계 특징

가. 對美 정책 입장과 시각

- 러미관계는 소연방의 붕괴 이후 시기별로 협력, 갈등, 대립 심화 등 부침을 거듭하였으며, 이는 주로 양국의 세계전략, 대통령의 리더십, 외교 안보진용의 정책 정향, 주요 현안 및 정책 우선순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2000년 5월 푸틴 집권 후 미러관계는 ① 반테러 공조 등 미·러 협력 단계 구축(2000년~2002년) ⇒ ② 미·러 간 갈등·대립의 심화와 지속(2003~2008년) ⇒ ③ 오바마의 ‘재조정(reset) 정책’과 협력관계 회복(2008~2011년) ⇒ ④ 시리아 사태, 유럽 MD, 러 국내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증폭(2011~2012년) ⇒ ⑤ 푸틴의 재집권과 미·러 갈등의 극심화(2012~현재)로 전개되어 나옴.
 - ※ 고재남, “최근 미러갈등의 심화와 양국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3.9.12), pp.2-8.
- 푸틴정부의 대미 전략적 입장도 러시아의 세계전략 연장선에서 푸틴 리더십과 대미 인식, 외교안보 진용의 정책 정향, 미러 주요 현안과 정책 우선순위 향배와 연계되어 있음.
- 러시아는 ‘강대국 러시아 재건’의 대외정책 목표하에 핵무기 감축, 국제테러리즘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미국을 군사안보적 전략 균형의 대상으로 보고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해나가는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09년 7월 성안된 《국가안보전략 2020》에서 라이벌로 ‘미국’을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질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 리더십의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창출에 진력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대미 견제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으며, 러·중·인 3각 협력 증진, BRICS 정상회의 개최, G8에서의 역할 제고, 유엔의 역할과 활동 강화 지원, SCO, CSTO, EurAsEC를 비롯한 지역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도 국제질서 다극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임.
-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 견제할 대상으로 특히 군사안보 시각에서 MD 구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러시아는 ‘강대국
러시아 재건’의
대외정책 목표하에
핵무기 감축,
국제테러리즘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미국을 군사안보적
전략 균형의 대상으로
보고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해나가는
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음

러시아의 대미 인식과 이해의 기저에는 비판적 조력자, 견제자의 성격이 깔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대내 문제의 간섭 금지, 유엔헌장 강조, 국제법적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견제적,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등 전략적 대립각을 세워 나가고 있음.

- 푸틴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산층과 야당 개혁세력의 반정부 시위 활동이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피력하고 있으며, 반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음.
- 실제로 러·미관계에 대해서도 양자 정치대화, 협력이 강력한 경제협력의 토대 위에서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비록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음.

○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무역, 투자, 과학기술 등에서는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며, 또한 글로벌 전략 안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제테러리즘, 마약 퇴치, 기후변환 대처 등 글로벌 사안은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반면 유럽 MD구축 문제,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에의 군사적 개입 등에는 반대하며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 사용 등 초국경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러시아의 대미 인식과 이해의 기저에는 비판적 조력자, 견제자의 성격이 깔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대내 문제의 간섭 금지, 유엔헌장 강조, 국제법적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대미 견제적, 불편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크게 증폭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 고재남 교수는 양국 간 갈등 지속 및 심화의 배경으로 ‘푸틴의 반미주의 vs. 부시/오바마의 러시아/푸틴 무시주의’, ‘러시아의 강대국주의 vs. 미국의 패권주의/일방주의’, ‘러시아의 내정 불간섭주의 vs. 미국의 인도적 개입주의’, ‘러시아식 민주주의 vs. 미국의 보편적 민주주의’, ‘러시아의 CIS 통합주의 vs. 미국의 CIS 지정학적 다원주의’를 제시하고 있음.

〈2012년 5월 푸틴정부 출범 이후 러미관계 동향〉

- 2012.5. 푸틴 대통령 취임, 집권 3기 출범
- 2012.5. 푸틴, 시카고 NATO 정상회의 및 워싱턴 G8 정상회의 불참
- 2012.6. 미국 상원, 마그니츠키법(러시아인권법) 통과
- 2012.6. 외국 지원 받는 NGO의 법무부 등록 의무화하는 NGO법 개정
- 2012.9. 오바마,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 불참
- 2012.12. 러시아 하원, 미국입양금지법(디나 야코블레프법) 제정
- 2013.1. 오바마 집권 2기 출범
- 2013.4. 미러, 자국 인권법 저축 인사 명단 발표 및 입국 금지
- 2013.6. 푸틴-오바마, 북아일랜드 G8정상회담에서 시리아 해법 이견 대립
- 2013.8. 러시아, 에드워드 스노든 임시망명 허용, 미국,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때 미러 정상회담 취소
- 2013.7. 중리, 유엔안보리의 시리아 결의안 관련 거부권 행사
- 2013.9. 유엔 안보리,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 채택
- 2013.11. 미러, 이란 핵문제 P5+1 협상안 도출
- 2014.2. 미국, 오바마 소치 동계올림픽 개회식 불참
- 2014.3. 미국, 백폴 주러 미국대사 이임 예정
- 2014.6. 러시아 소치에서 G8 정상회의 개최 예정

나. 러미관계의 특징

- 첫째, 러미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세계질서 주도를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
 - 러시아는 냉전시기 양극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외교적 자부심과 자긍심이 남아있는 가운데 소연방 붕괴에 따른 국력 저하와 국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한 외교적 상흔을 지니고 있음.
 - 소연방 해체 직후 열린 대통령과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친미·친서방 정책을 펼쳤으나 무시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대응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등 대미 불신이 내재해 있음.
 - 푸틴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활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인식한 가운데 이에 걸맞는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와 역할을 찾고자 함. 즉 ‘러시아의 변모상’을 전제로 국제적 현안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를 해나가고 있음.
 - 미국 역시 탈냉전 시대 패권적 일극체제의 국제질서를 지속 견지해 나가하고자 하며, 미·러 모두 역사적, 지정학적 토대하에 세계질서 역할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경쟁과 견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임.
- 둘째,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갈등 내지 개인적 감정, 친교 상대가 러미관계 갈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푸틴정부는 러시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활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인식한 가운데 이에 걸맞는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와 역할을 찾고자 함. ‘러시아의 변모상’을 전제로 국제적 현안에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를 해나가고 있음

러·미 양국 간**쟁점 영역별로****상호 갈등과 견제,****협력 성격이****공존하고 있음**

- 푸틴은 취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하는 워싱턴 G8 정상회의와 시카고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미국에 불만족한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등 양국 지도자 간 갈등과 신뢰 부족 상태가 지속됨.

- 집권 1기 오바마 정부는 메드베데프 집권기 동안 새로운 리더십에 기초한 양국관계 재조정에 적극 나섰다라는 점에서 푸틴 집권기와는 대조를 이룸.

*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4월 G20에서의 미·러 정상 회동 그리고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오바마-메드베데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화해’와 관계 ‘재설정(reset)’ 분위기가 고조되었음.

- 2009년 7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양국관계를 재설정하는데 합의하고, 핵무기 감축을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해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셋째, 러·미 양국 간 쟁점 영역별로 상호 갈등과 견제, 협력 성격이 공존하고 있음.

- 러·미 양국은 MD 구축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갈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MD 구축 문제로 미국은 NATO와 함께 유럽MD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러시아는 이에 반대함은 물론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 공동 추진,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 준비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임.

- NATO의 동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등의 EU 편입,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문제 등 중동정책, 러시아 내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도 지속되고 있음.

- 반면에 경험을 포함해 초국경 의제에 해당되는 국제테러리즘,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WMD 확산 방지, 마약·해적 퇴치, 자연재해, 재난 구호, 국제보건 등에서는 상호 협력하고 있음.

○ 넷째, MD 구축 및 NATO의 동진 등 양보 내지 타협하기 힘든 군사안보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견을 지닌 채 갈등을 유발시켜 온 것으로 추후 결정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양국관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양국 모두 ‘핵심 이익’과 연계된 안보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同사안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다섯째, 러미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정치경제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 미·중, 미·일, 중·일관계와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G2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함께 대미 견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후원 속에 중동, 중앙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재자적 역할도 강화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11월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해결을 둘러싸고 군사적 해법을 제시한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중재에 적극 나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이끌어냄으로써 러시아가 외교적 승리를 거둔 사안을 꼽을 수 있음.

4. 러미관계 전망과 對동아시아 파급영향

가. 전망

- 푸틴정부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 리더십 등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창출에 진력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전반적으로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럽 MD 구축, NATO의 동진 등 안보 현안의 이견이 지속되고 현재의 갈등 심화 양상이 당분간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신거대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과 G2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아랍의 봄 이후 총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미러 간 외교 경쟁과 견제 역시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러미관계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푸틴-오바마 간 리더십 갈등,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문제 제기, 시리아 사태 등 중동정책 이견, 추가 핵전략 감축 등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음.
- 총체적으로 푸틴정부의 대미관계는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 수준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푸틴정부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 리더십 등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창출에 진력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적 측면에서

G2체제가 보다

가시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더욱 커져나갈 경우,

미·중·러 3각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도 커져나갈

것이 예상된다

것으로 전망됨.

- 국제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제보건, 해적, 빈곤, 마약 퇴치 등 지구적 위협 요소를 담고 있는 글로벌 현안과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는 실용적 부문에서는 상호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회담, 이란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비롯한 2+2 회담 개최 등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대화와 외교적 노력은 제한적이거나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나. 동아시아에의 파급영향

- 푸틴정부의 대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방 주도하의 국제질서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이의 후원세력 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
 - G2체제의 가시화와 함께 역내 국제질서 체제의 ‘러·중 vs. 미·일’ 구도를 강화시켜 주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러미관계의 악화는 동아시아 질서 내 블록화된 대결 구도의 심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미관계는 미중관계에 비해 국제적 관심사가 적으며, 중요도가 낮고 역내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됨.
- 중장기적 측면에서 G2체제가 보다 가시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더욱 커져나갈 경우, 미·중·러 3각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러시아의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도 커져나갈 것이 예상된다.
-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미·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과 영향력 측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미·중의 G2체제 가시화, 중·일간의 갈등·경쟁 심화 등 동북아 주요국 간 관계 변화 양상 속에서 러시아의 존재감과 중재자적 역할 증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러·미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은 양국의 세계전략, 동아시아 전략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대북 MD구축, 남북관계, UN 결의안, 한반도통일 문제 등이 러·미관계와 연계되어 있음.

- 러·미는 한반도 비핵화에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동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음.
- 러·미 간의 갈등 양상은 북한 위협 변수에 대한 대응으로 MD 구축을 둘러싼 이견 표출 등 한반도문제 해결에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러·미 간 갈등 심화는 ‘중·러 對 미·일’ 질서 구도의 연장선에서 ‘한·미·일 對 북·중·러’ 등과 같이 진용별 역내 질서 대립 축을 형성시켜 나갈 개연성도 높여줄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러·미 간 갈등 심화는 동아시아, 동북아, 한반도 질서 및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의 심화 속에 향후 러·미 간 협력이 보다 부각되도록 하는 노력이 긴요함.

5.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

- 동아시아 내 기본적인 러시아의 대미 견제 입장과 시각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과 힘을 모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구도 역시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임.
 -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여전히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이의 기반위에 러·미, 미·중, 미·일 관계 향배 역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이 크게 부각되어 갈수록 러시아의 이에 대한 우려감과 대응 입장 역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동아시아·한반도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조용하기 위해 러·미, 미·중, 중·일 관계 양상을 포함해 미·러·중, 중·일·러 등 3국 관계 향배에도 주목하는 것이 긴요함.
-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서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러시아의 긍정적, 우호적 역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미관계 갈등 속에 푸틴정부는 국제적 위상과 독자적 목소리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중재, 중·일 간 대러 외교적 구애에서 보듯 주요 외교 현안에서의 해결자, 균형자의 모습도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서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러시아의 긍정적,
우호적 역할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화되고 있음.

- 러·미 간 갈등 심화가 한미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 정책에 대해 조용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함.
- 단·중기적으로 2013년 11월 개최된 한·러 정상회의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북핵문제 해결에의 긍정적 역할 제고, 통일한국에의 우호세력화 및 한·러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공공외교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강봉구. “푸틴 집권 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주요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2012년 6월), pp.129-152.
- 고재남. “최근 미러갈등의 심화와 양국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3.9.12), pp.1-21.
- 서동주. “러시아 푸틴시기 정치체제의 특성.” 『슬라브학보』, 제28권 4호(2013), pp. 235-266.
- 서동주.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대러 대응전략.” 『국제문제연구』, 제12권 제2호(2012 여름), pp.171-207.
- 신범식.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1호(2013년 봄), pp.123-161.
- 장덕준. “푸틴 3기 정권의 대외전략과 미러관계, 중러관계의 전망.” 『국가전략연구』(2013년 봄), pp.163-178.
- 제성훈. “3기 푸틴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JPI정책포럼』(2013.5.24), pp.1-15.
- 조정원.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한반도.”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2013), pp.65-111.
- Valdai Discussion Club. *The U.S.-Russia Relations after the 'Rest': Building a New Agenda. A View from Russia.* 2011. March.

❖ 저자 약력

■ 서동주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국제관계연구센터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국제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외교, 한러/북러관계, 동아시아국제정치 등이며, 최근 연구로 “러시아 푸틴 시기 정치체제 특징”,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남-북-러 경제협력과 북러관계”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